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안전은 최우선 가치”

김인중 사장, 전국 700여 건설현장 점검... 안전 강화
안전은 규정이 아닌 문화...사람 중심 작업환경 조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지난 7월 18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앤젤 투자설명회(2025 Angel-Agri IR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진원이 동남권·대경권 앤젤투자허브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본 행사는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지역 예선과 1:1 투자상담회를 거쳐 최종 6개 기업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이날 최종 심사와 시상이 이루어졌다. 스타트업 대표와 투자자, 관계기관 등 85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BNK벤처투자 조재만 상무의 농식품 투자생태계 및 트렌드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투자설명회, 심사와 시상식,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투자설명회는 시장성과 사업화 전략, 투자금 활용 계획 등에 중점을 두고 구성돼 심사위원

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국산 흡을 이용한 고기능성 음료용 농축액 개발로 농산물 국산화 경쟁력을 높인 ㈜하이드로오아시스(대표 김한동)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진공 속성 기술을 보유한 ㈜에스티리테일(대표 김태

성)과 농생명 원료 융합 소재 기업 ㈜티웰(대표 김건우)이, 장려상은 데스크팝 개발 ㈜굴리(대표 유정곤), 친환경 가죽 기업 ㈜셀리움랩(대표 정은성), 개인 맞춤형 식품 서비스 기업 알파75(대표 강무현)가 각각 수상했다. 심사에는 한국엔젤투자협회, 롯

데벤처스, 콜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등 10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해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의 확장성과 시장 타당성을 종합 평가했다.

농진원은 이번 투자설명회 이후에도 8월부터 후속 투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의 투자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1일 전남 강진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와 안전토론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22일 직원 30여 명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서산의 양봉 농가를 방문해 파손벌통과 양봉장 시설 등을 정리하며 일손을 돕고 꿀벌 관리기술도 지원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

청렴·갑질근절 결의대회 추진 등 청렴문화 확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5년 반부패·청렴 주간’을 운영 중이다. ‘2025년 반부패·청렴 주간’은 청렴활동 집중 기간을 정해,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공정·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반부패·청렴, 갑질근절 결의

대회 등 기관의 청렴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해당 기간 동안 추진된다.

8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실시된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청렴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반부패·청렴, 갑질 근절 결의대회, 청렴 서한문 배포는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시행되었으며,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

했다. 8월26일에는 배려와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끝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주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수현 원장은 “이번 ‘2025년 반부패·청렴 주간’은 청렴한 R&D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aT, 생산자·유통사 직거래 구매상담회 개최

15개 지자체 60여 개 생산업체와 21개 유통사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 서울에서 전국 농식품 생산자와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를 연결하는 ‘전국 생산자·유통사 직거래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aT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채널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경상·전라·충청 등 15개 광역지자체의 60여 개 생산업체가 참여했으며, 카카오톡·컬러·오아시스 등 온라인 채널과 주요 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21개 유통사 MD들이 함께해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단순한 거래 상담을 넘어 △직매입 상담 △온·오프라인 입점 협의 △상품 개선 컨설팅 △판매 활성화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돼, 시

장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매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한 생산자는 “제품 입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aT 홍문표 사장은 “이번 상담회는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구매자에게는 우수 농산물 발굴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생산자들의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전국 생산자·유통사 직거래’ 구매상담회 현장사진 (aT 제공)

한국농수산대

2026학년도 신입생 570명 모집

9월 8일 원서접수 개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오는 9월 8일 수시 1차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570명 선발 절차를 개시한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11월 19일 발표한다.

수시 2차 원서접수는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12월 17일 발표한다.

수시 1차 모집인원은 456명이며,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254명, 농수산전형 123명, 사회통합전형 18명, 지역균형전형 61명을 모집한다.

수시 2차는 일반전형으로만 114명을 모집한다.

한농대 2026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집 방식을 학부 모집과 전공모집 병행 방식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 입학생들의 입학 이후 희망 전공 미배정에 따른 자퇴 등 문제를 해소하고, 1학년 입학 시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지역균형전형 모집인원을 40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고 3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균형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정원 ‘우리가 그린대로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그린대로’ 서포터즈 출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8월 21일 농정원 본사에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가 그린대로 제3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의 인지도 제고와 서비스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

되었으며, 특히 MZ세대의 참여와 누리소통망(SNS) 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목표로 한다.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총 24명 가운데 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카드뉴스,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그린대로’ 통합플랫폼의 가치와 정보를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개최

경영목표 달성 위한 논의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7월말 경영실적 및 연도말 손익전망 ▲ 농축협 및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 계열사 사업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준섭 부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손익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임직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급원도 경영목표를 기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재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농협사료의 발자취

어둠이 내려앉은 재해의 현장, 그곳에도 농협사료의 발걸음이 닿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폭우 속에서,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협사료의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마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축산농가의 삶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농협사료 임직원 올림

